2023년 한국회계학회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포럼 금융기관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시: 2023년 02월 09일
주최/주관: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

주제발표 1
기후변화 정보의 측정과 공시

기후리스크와 국내은행의 대응: 기후 stress test 결과와 금융배출량 현황을 중심으로
김재윤 한국은행 과장

IFRS S2의 측정 이슈; GHG protocol, SBTi를 중심으로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

금융기관의 Scope 3; PCAF 측정과 보고
김미선 BNZ 본부장

주제발표 2
금융기관의 적용 사례

신한금융지주, 금융배출량 시스템 구축과 ISSB 공시 대응 현황
조정훈 신한금융지주 ESG본부장

KB금융그룹, 금융배출량 측정과 활용 사례
문혜숙 KB금융지주 상무

DGB금융그룹, SBTi 수립 사례
허재룡 DGB금융그룹 팀장

종합토론

권미엽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 위원
김동원 수원대학교 교수
김현민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센터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일 금융위원회 과장

본 리포트에 담긴 정보에는 해당 ESG 이벤트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콘텐츠의 견해 및 보증은 해당 행사 주최측의 책임으로 당사는 게재 콘텐츠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의 텍스트, 이미지 및 레이아웃은 임팩트온이 저작권을 가지며, 임팩트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저작물의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master@impacton.net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Executive Summary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IFRS S1 & S2)이 6월 확정 공표를 앞둠. 국내에서도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KSSB를 설립하여 ISSB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산업계에서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가 진행됨. 본 포럼은 IFRS S1 & S2의 도입을 앞두고 국내 금융기관의 정책적·실무적 이슈들을 탐색하고 토론함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

Key Takeaway 1

기후변화 정보 측정 및 공시 기준

- 김재윤 한국은행 과장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활용하여 전환 리스크로 인해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이 받을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를 소개함. 1.5℃ 감축 시나리오와 2℃ 감축 시나리오를 비교했을 때 2℃ 감축 시나리오가 타격이 더 적다고 분석함
-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GHG 회계 및 공시 기준과 SBTi를 설명하며 회계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과 법제화됐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함
- 김미선 BNZ Partners 본부장은 PCAF의 측정 및 공시 지침 전반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Key Takeaway 2

금융기관의 적용 사례

- 조정훈 신한금융지주 ESG본부장은 신한이 국내 금융 최초로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하고 기후 공시를 시작했음을 설명함. PCAF 기반으로 금융 배출량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ESG Data 플랫폼을 통해 향후 IFRS S2 공시에 대응할 것임
- 문혜숙 KB금융지주 상무는 KB 금융은 SBTi 승인을 목표로 필수 자산군 중심의 금융 배출량을 측정했음을 설명함.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금융, 기후변화 대응 전환리스크 관리, 기후 친화적 금융상품,이해관계자를 위한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측정을 활용함
- 허재룡 DGB금융그룹 팀장은 SBTi 방법론인 SDA(부문별 감축방식), Portfolio Cover, Temperature Rating을 설명함. DGB 금융그룹은 SDA와 TR을 방법론으로 채택했고 중소기업을 산정 부문에 포함함.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PCAF(탄소 회계 금융 협의체): 금융탄소배출량 측정 방법론과 공시법을 제시하는 협의체

Key Takeaway 3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노력

-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센터장은 ISSB 논의 및 결정 사항을 설명함. ISSB의 Scope 3 완화 조치를 설명하고, 기준원의 Scope 3 배출량 공시를 포함한 ISSB 공시 사례 작성 계획을 보여줌
- 김동원 수원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성 공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기관과 일반기업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설명함. 공시 수준의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ESG 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함
-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은 거래소의 지배구조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소개함. 김현민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은 대한상의의 SLL(지속 가능 연계 대출)과 공시 관련 기업의 의견을 설명함

김재윤 한국은행 과장

기후리스크와 국내은행의 대응; 기후 stress test 결과와 금융배출량 현황을 중심으로

(전환 리스크 소개)

전환 리스크는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 위험 및 기회임. 주요 요인은 정부의 정책과 기술 발전임.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실물 경제 부문에서는 탄소 집약적 산업이 위축되는 리스크가 발현됨. 금융기관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대출, 채권, 주식에서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전환 리스크에는 이러한 위험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 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기회도 존재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화석연료 의존도와 제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환 리스크가 큼

(BOK-Climate Stress Test 소개)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개발한 BOK-Climate Stress Test를 통해 전환 리스크를 실제로 정량화함. NGFS(녹색금융협의체)의 GCAM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1)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2℃ 이내 억제(배출량 70% 감축)와 2)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 이내 억제(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성함. 다음으로 금융기관 보유 자산 구성이 2050년까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금융 시스템이 전환 리스크에 대해 받을 영향을 추정함. 실물 부문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되고 저탄소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의 변화나 기업별 부가가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향을 추정함. 금융 부문은 기업의 부가가치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변화와 시장위험 변화에 따라 은행의 보유자산 가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향을 추정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 실물경제)

2050년까지 온실가스 탄소 가격은 2℃ 시나리오에서 톤당 30만 7000원까지, 1.5℃ 시나리오에서 톤당 83만 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 믹스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0~85%까지 높아짐.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실물경제 영향을 추정한 결과 2℃ 시나리오에서 비교적 피해가 작은 수준이라고 판단함. 배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지만 기술 발전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상쇄되어 GDP 피해가 2020~2050년 사이에 -2.7%로 적은 편임. 1.5℃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후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의한 부작용 영향이 커지며 급격한 GDP 하락이 크게 일어나며 2020년에 비해 -7.4% 수준으로 하락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 금융 부문)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2℃ 시나리오는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초반에 타격을 받지만 2050년까지 16.5%에서 13.9%로, 손실은 총 2.6% 정도에 불과함. 반면 1.5℃ 시나리오는 2040년 이후부터 탄소집약 산업에서 부실이나 부도 상승, 주가 하락이 본격화되면 BIS 비율이 총 -5.8%까지 떨어짐. 은행권 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분석해봤을 때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12.5%나 14.7% 수준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보다 해당 비중이 20%인 특수은행이 더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 은행 금융 배출량 현황)

국내은행의 자산 운용에 기여하는 배출량이 국가 배출량 전체 22% 수준임. 시중은행은 약 6600만 톤으로 굉장히 높고, 지방은행 자산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1200만 톤임. 하지만 특수은행은 규모는 작지만 탄소 집약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융배출량이 8500만 톤으로 나옴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

IFRS S2의 측정 이슈; GHG protocol, SBTi를 중심으로

(GHG 이니셔티브 프로토콜)

Scope 1, 2, 3 정의에 대한 논란은 없지만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별 수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닌 전체에서 추산한 수치임. 탄소 감축량은 프로젝트와 상품 각각에 대해 측정하는 가이드가 있음. 기준과 지침 문서가 특히 한국어 번역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법제화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제1장 GHG회계와 보고 원칙)

정보의 속성을 제시함. 정보는 목적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다섯 가지 속성을 가져야 함. ISSB나 GRI는 투자 대상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에 비교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데, GHG는 이를 왜 포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비교 가능성은 기준점이 되는 해를 설정하여 정보의 비교가 가능하게 만드는 개념임. 탄소 인벤토리의 확장 등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속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스코프3 불포함)

Scope 3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업 간 구조나 사업 방식(인소싱, 아웃소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정보 없이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했기 때문에 제3장에서 조직의 범주를 설정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함. (1) Equity share approach는 지분 비율만큼 탄소 배출을 합산하는 것이고, (2) Control approach I(Financial control)은 재무적 통제의 범위, (3) Control approach II(Operational control)는 운영상 통제의 범위에 해당하면 보고해야 한다는 기준임. 아직은 회계 상식에 맞지 않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어떤 기준을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수준이므로 이대로 법제화하면 기업은 그린워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SBTi)

SBTi는 CDP, UNGC, WRI, WWF의 연합체로 1.5℃ 시나리오에 맞춰 기업이 탄소중립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독려하는 비즈니스 기후 행동 캠페인을 주도함. 우리나라 기업은 30곳이 가입했고 목표 제출 기업은 4곳 밖에 없음. SBTi는 최신 과학에 기초한 정보를 기반으로 넷제로 목표를 세우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 압박받게 됨. 따라서 기업이 동참할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김미선 BNZ 본부장

금융기관의 Scope 3; PCAF 측정과 보고

(PCAF 소개)

PCAF(탄소회계금융연합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투명하고 일관된 공개를 목적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융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연합체임. 2015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2022년 11월 26일에 PCAF 코리아까지 발족됨. 전 세계 355개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고 국내 주요 금융 그룹 또한 PCAF 기준에 따라 공시하고 있음. 2022년 11월에는 NZIA와 협력하여 보험 배출량 방법론을 출시했고, 2022년에는 금융기관을 위한 글로벌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기준을 업데이트했음. 올해 초 중 자본시장 촉진 배출량 관련 산정 방법론을 출시할 예정임

*NZIA(넷제로 보험 연합):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보험사와 재보험사 이니셔티브

(PCAF 기준 범위)

PCAF는 발생 배출량, 제거 배출량, 회피 배출량 세 가지 종류의 배출량에 대한 산출을 지원함. 일곱 가지 자산 유형(상장주식 및 회사채,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 대출, 국채)에 대한 정의, 기준, 산출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자산 유형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설정함: (1) 금융 출처 (2) 자금 용도 (3) 섹터임. 이 중에서도 금융 출처가 가장 중요함. 사용 용도가 구분이 되지 않더라도 주체가 명확하다면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되어 있음

(금융배출의 산정 원칙 및 보고 기준)

PCAF은 온실가스 프로토콜 Scope 3에 대한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되 PCAF 회계 보고 원칙인 인식, 측정, 귀속, 데이터 품질, 정보 공시의 총 다섯 가지를 추가로 제시함. “인식”은 금융기관의 투자 및 대출은 온실가스 프로토콜 Scope 3 카테고리로 인식한다는 원칙임. “측정”은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적한다는 것임. “귀속”은 피투자자의 배출량에 귀속계수(피투자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투자기관의 몫)를 곱하여 산출한다는 것임. “데이터 품질”은 금융기관이 각 자산유형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최신 데이터를 계산에 사용하고 시간에 걸쳐 품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마지막으로 “정보 공시”는 금융배출 절대량을 공시해야 하고 제외된 부분에 대해 제외 사유를 설명한다는 것임

조정훈 신한금융지주 ESG본부장

신한금융지주, 금융배출량 시스템 구축과 ISSB 공시 대응 현황

(금융그룹의 숙제)

글로벌 지속 가능 공시는 자율에서 의무로 바뀜. 기존 GRI 가이드라인에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전환됨. 공시는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함. 그룹 자체 데이터뿐 아니라 고객의 ESG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금융 자산의 배출량을 관리하고 영향을 분석하는 Scope 3 중요도가 커짐. 이를 여신과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해야 함. IFRS S2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지속가능 금융으로의 전환과 전환의 가속화임

*IFRS S1, S2: S1은 일반요구사항, S2는 기후 관련 공시

(신한의 탄소 중립)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12월 국내 금융 최초로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하고 기후 공시를 시작함. 작년 말까지 친환경 금융을 약 8조원 이행했고 작년에 녹색 채권을 최초로 발행함. 측정, 분석, 목표, 실행 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이사회와 C-level에서의 성과 관리를 하고 있음. 공시/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IFRS ISSB S2 형태로 확대할 것임

(PCAF 기반의 금융배출량 시스템)

PCAF 기반으로 금융 배출량 시스템을 구축해 실적 현황과 감축 실행을 위한 전략을 분석함. 신한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250조가량의 자산을 대상으로 약 5천만 톤 금융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음. 실제 배출량 외 자산, 환율과 같은 외생 변수에 의해 금융 배출량이 왜곡되고 시점의 차이에 의해 오류가 발생함. 배출량 시스템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보완해야 함

(금융배출량 세부 사항)

실제 금융배출량 측정은 PCAF의 기준을 따르나, 환경데이터 활용은 별도 내부 기준을 마련함. 금융 자산과 시점 차이에 있어 제약사항이 있었음. 배출량의 경우 환경부의 국가 온실가스 종합 시스템 자료와 S&P의 별도 데이터를 사용함. 중소기업의 경우 PCAF의 국제 표준산업 분류 코드(ISIC)와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를 매칭해 한국의 표준산업 분류별 배출 계수를 제작해 추정함. 고객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중복 카운팅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측정과 실행)

금융 배출량 모니터링을 넘어 측정 결과를 대출이나 투자 심사 체계에서 활용하고자 함. 현재 같은 업종 내 고객들 사이에서 더 친환경적인 기업들을 선별하고 전환 금융을 확대하는 지표로 활용함. 고배출 업종의 경우 대출 총량을 금융 배출량 기반으로 제한함

(ESG Data 플랫폼 시스템 구축)

신한은 ESG 공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ESG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임. 기후 관련 데이터들을 연결 기준으로 구조화하고 데이터 확보를 위한 내부적 거버넌스를 구축 중임. 추후 ESG 공시 자동화를 목표로 함. 금융배출량 시스템과 개발 중인 ESG Data 플랫폼을 연계해 향후 IFRS S2 공시에 대응할 예정임

문혜숙 KB금융지주 상무

KB금융그룹, 금융배출량 측정과 활용 사례

(금융 기관의 금융배출량)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측정 및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 공시 기준이 제도화되고 규제화됨. 금융배출량 정보는 탄소중립 목표 수립 및 이행, 기후리스크 관리,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등에 활용됨. PCAF 기준으로 배출량 측정을 하고 있고, SBTi 기준으로 목표를 수립함. 개별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 중임. 기업은 고탄소 배출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해야 함

(KB금융 사례)

(1) KB 금융의 금융배출량 측정: 금융배출량 측정부터 평가까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활용하고 있음. SBTi 승인을 목표로, PCAF와 SBTi 자산군의 분류 매핑을 통해 필수 요건의 자산군을 중심으로 측정함. 측정 결과, 실제 값보다 모델링 추정값이 높음

(2) 측정의 활용: PCAF의 4대 핵심 목표를 기반으로 활동함. PCAF의 4대 핵심 목표는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금융, 기후변화 대응 전환리스크 관리, 기후 친화적 금융상품, 이해관계자를 위한 투명성 강화임

-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금융을 위해 감축 목표를 수립함. SBTi 승인받음.'KB Net Zero S.T.A.R.'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임. PCAF와 SBTi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반영해 감축목표를 재수립할 예정임
- 익스포저와 금융배출량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기에, 익스포저와 금융배출량 및 집약도 수준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전환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함. 미래 탄소 가격에 기반으로 반영하지 않은 탄소비용과 EBIDA 변동 폭 등을 산출해 우선순위로 관리해야 하는 기업 및 산업을 선정함

*익스포저(exposure):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 혹은 손실금

*EBIDA: 이자, 감가상각 전 수익

- 기후 친화적 금융상품을 개발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과 국내 현실을 고려한 그린 파이너스 지원이 필요함. 중소기업 대상으로 친환경 전환에 동참을 유도하는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이해관계자를 위한 투명성을 강화함. 목표 수립 후 기후 리스크 관리, 기후 관련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TCFD 보고서를 활용함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로 권고안을 제공함.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법제화 됨

(향후 과제)

금융 배출량 정보의 폭넓은 활용과 실물 경제의 넷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기업들은 자체적 탄소 배출량 공시를 확대해야 함. 외부 변수에 의한 금융배출량 데이터 변동성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허재룡 DGB금융그룹 팀장

DGB금융그룹, SBTi 수립 사례

(SBTi)

연방 조달 업체의 기후 위험 및 탄력성 규칙에 따라 연간 약 98억 원 이상 계약자는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연간 약 650억 원 이상 계약자는 Scope 3 배출량과 기후 관련 금융위험 보고 및 SBTi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함. SBTi 목표 승인 시 비용 부담이 있음

(SBTi 방법론)

(1) SBTi는 금융권의 효과적 Scope 3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SDA(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를 제공함. SDA는 주요 산업과 자산군별 온실가스 집약도 표준지표 및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감축 수준을 정의함. 산업별 시나리오 분석이 이뤄져 있고 해석이 직관적이지만 소형 차주들의 이행 부담과 SDA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산업은 적용 불가함

(2) Portfolio Cover는 SBT(과학 기반 기후 목표)를 수립한 클라이언트 기업 비율을 주요 측정 지표로 함. 과학적 기반 감축목표 설정을 유도하나 소형 차주의 이행 부담이 있음

(3) Temperature Rating은 온도 점수를 통해 목표 부합 여부를 판단하며, 포트폴리오 현황이 온도 점수로 표현돼 해석이 직관적임. 온도 점수 산정에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함

(DGB 금융그룹 SBT 수립)

DGB 금융 그룹은 발전 P/F, 기업 여신 중 부동산 및 발전 부문을 100% 포함하고, 중소기업도 산정 범위에 포함함. DGB금융그룹의 금융배출량은 약 476만 톤이며, 중소기업의 배출량이 약 80%였음. DGB금융그룹은 SDA와 TR을 목표 설정 방법론으로 채택함. 자체 배출량은 2040년, 금융배출량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수립함

*P/F(Project Financing): 금융자금조달

(시사점)

(1)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 모든 경제주체의 이해와 참여, 기업 내부의 설득 과정, 규제 대응을 넘은 선제 대응을 통해 경쟁력 확보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2)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경영 여건상 규제와 의무 관점으로 접근이 어려움. 중소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함. DGB 금융그룹 차원의 노력은 지속할 예정임

| 종합 토론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에서 펀드의 지속 가능성 공시가 출시되면 투자자 보호 이슈와 연계될 수 있음. 펀드들의 ESG 목표가 구체화될수록 요구하는 공시 내용도 구체화됨.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됨. 우리나라가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NDC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임. 금융 배출량에서 실제 배출량과의 데이터 갭도 문제임. 맥킨지 1월 보고서에서 기후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클린테크놀로지에 현재 할당치의 40%를 추가로 50년까지 투자해야 한다고 서술됨. 그중 3분의 1은 현재 고탄소 산업군의 저감에 투자되고 3분의 2는 신에너지 테크놀로지 개발에 투자해야 함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센터장

(ISSB 논의 및 결정 사항) ISSB는 작년 3월 발표한 S2 공개에서 상업은행, 보험, 투자은행, 자산 관리 및 보관 활동의 금융 배출량 공시를 요구했고 투자은행에는 촉진 배출량 공시를 요구함. 촉진 배출량의 경우, 정보 산출 방법론이 개발 초기 단계이기에 공시 요구가 시기상조라 판단해 삭제함. 하지만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촉진 배출량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기에 투자 은행은 관련해 주시해야 함. 금융 배출량 방법론 중 PCAF를 많이 사용하지만, 기업들은 자의적으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정보 신뢰성이나 비관성 문제는 기준원에서 고민해야 함. 산업 은행과 보험의 경우 대출 약정에서 인출과 미인출의 구분이 필요해, 별도 공시를 요구받음. 이를 준비해야 함

(Scope 3 완화 조치) ISSB는 Scope 3의 필요성 및 어려움을 인지함. 따라서 완화 조치를 마련함. Scope 3에서 직접 측정이 선호되나, 추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됨. 기업은 직접 측정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외에도 1차 데이터나 검증된 데이터를 사용해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음. S2 시행일로부터 1년간 Scope 3 배출량 공시 요구의 임시 면제를 승인했고 가치 사슬 내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보를 얻을 때, 보고 일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

(기준원의 노력) 완화 조치에도 Scope 3 측정은 어려운 도전임. 기준원은 금융 산업의 대표 기업들을 선정해 Scope 3 배출량 공시를 포함한 ISSB 기준을 적용한 공시 사례를 작성할 것임. 이 과정에서 적용상 어려운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해 ISSB 기준 개선에 기여하고 다른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한국거래소는 공시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고민임.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유도하면서 기업에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야 함. 한국거래소는 지배 구조 보고서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자율 공시 형태로 운영 중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운영함. 향후 거래소는 일반 회사나 금융회사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공시 제출 시 거래소의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책을 고려할 것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로 운영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 작년 78개 회사에서 2022년에는 129개로 60% 이상 증가함. 전체 업종 중 금융 업종이 가장 많이 제출함. GRI, SASB, TCFD 등을 많이 사용함

김현민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

(진단과 심사, 컨설팅) 대한상의도 금융권 관련 ESG 이슈에 대해 활약 중임. 대한상의는 ESG 아젠다 그룹을 운영 중임. 금융권의 공급망에서는 금융 배출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밸류 체인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측정하는 것이 이슈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Scope 3에 대한 기업의 기본적 이해와 개념이 부족함. 이에 대해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 중임

| 종합 토론

(인센티브) 기업들을 움직이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함. 대한상의는 지속 가능 연계 대출(SLL)을 IBK 기업은행과 출시함. ESG에 대한 기본적 목표를 세우면 1%의 금리 할인이 들어감. ESG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자 함. 3월에 더 큰 규모로 SLL를 재출시할 예정임

(기업의 의견) 기업의 의견을 들어봄. ISSB 공시 관련해 기업은 사업 보고서가 아닌 지속 가능 보고서에 ESG 공시를 해야한다고 요구함. 사업 보고서에 작성 시 자본 시장법에 접촉돼 집단 소송 등 페널티 부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임. 지배구조 보고서와의 중복성으로 지속 가능 보고서로 합치자는 의견이 있었음. Scope 3과 관련해서 기업은 국내 실정에 맞게 천천히 도입하자는 의견임. 또한 여러 ESG 평가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양해 평가가 일정하지 않음. 가이드가 필요함

김동원 수원대학교 교수

금융기관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신뢰성이 있고 정확성이 높은 ESG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이 문제임. 금융기관은 기업들이 공시하지 않기에 ESG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음. 하지만 비교 가능성이 낮은 정보기에 의사결정이 어려움. 금융기관이 ESG 정보를 활용해 여신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며, 일반 기업은 평가하는 ESG 정보와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있음. 금융 기관과 일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함

(1)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공시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금융기관들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핵심적 필요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동향을 살펴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함

(2) 금융기관이 ESG 정보를 일반기업들로부터 받을 때 요청 정보가 표준화되면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덜할 것임.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조율자, 즉 감독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권미엽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 위원

(글로벌 3대 공시 기준) 글로벌 3대 공시 기준은 IFRS, EU,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제시함. 이 3개의 공시 기준의 공통점은 기업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임. 공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지향함

(Scope 3) Scope 1은 사업장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임. Scope 2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 및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의 배출량임. Scope 3은 원자재부터 고객까지의 전 과정 배출량임. GHG protocol에서는 Scope 3을 15개 카테고리로 구분했는데, 15번째 카테고리가 금융 배출량임. Scope 3 관리는 어려움

김광일 금융위원회 과장

(공시 기준 강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환경과 사회 등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함. EU나 미국의 SEC를 중심으로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실사법,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강화함. 이는 직접적으로 수출 대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공시 기준) ISSB 출범 후 2개의 공시 기준을 발표함. 상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할 것임. 관련해 정부는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대략 발표함. 2025년부터 상장사 일정 규모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의무화가 될 것임. 세부 공시 기준과 대상 기업, 일정은 추가로 검토해 구체화할 예정임. ESG 공시를 사업 보고서에 할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할지는 공시 기업의 부담,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임. 기업 지배 보고서의 중복 문제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 평가 기관별로 다른 평가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